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2
의룡 스님(前 직지사 강주) / 육조단경(9월 23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가섭존 자에게만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난존자에게도 법을 전하셨어요. 두 분 모두에게 법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 불교의 장자종단이요, 전통종단인 조계종에서 특 하면 시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비를 보면서 나는 "오조 때에도 이런 시비가 있었는데 어찌 시비가 없을 수 있겠는가"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다만, 그때처럼 법이 옳으나 그르나 하는 시비가 아니기에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법(佛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처님은 40여 년간 법을 전하셨지만, 시비가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종에서 <육조단경>을 <금강경>과 더불어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육조단경>을 그리 탐탁지 않게 본 것이 바로 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편이나 안 돼서 그런 것일

하고 다녀와서 잘 아시겠지만, 속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선 하는 사람들이 자나 깨나 '이 뭣고' 하는데, 이것도 어찌하면 하나의 망상입니다.

불성자리는 말이나 문자나 행동으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뭣고'만 안다고 해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뭣고'라는 속제를 푸는 것이지 불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이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 질 수도 있고요. 잘 못 생각한 것이라면 용서를 바라면서, 그저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과제를 드립니다.

신수 대사의 계승을 다시 봅시다. 보리와 명경은 바로 도(道)입니다. 이것은 본분을 밝힌 것입니다. 밀의 두 줄은 수행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명경의 면지를

런데 해능 스님은 여기에 계승을 다시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해능 스님이 반박문을 짓지 않아도 되는데 계승을 조금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능 스님이 계승을 지어 바치자 오조 스님은 가사와 발우를 전한 후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이때 수백 명이 의발을 빼앗으려고 쫓아갔습니다. 해능 스님이 "이 가사는 믿음의 표시인데 어찌 힘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하자 해명이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가사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고 말하며 법을 정했습니다. 이때 해능 스님은 "선(善)도 생각하지 말고 악(惡)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보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면목이니,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선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않아야 그것이 부처 자리입니다. 나의 본래면목입니다. 이 뜻을 알면 <육조단경>의 큰 뜻을 다



9월 23일 열린 봉선사 강설대법회의 두 번째 시간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구했다.

니다. 제가 수행이 덜 되어서 그렇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계종에서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육조 스님과 신수대사 간의 일화를 다시 찾아 읽곤 했습니다.

육조까지는 여래선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여래선이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후 양산 스님이 조사선을 개발했어요. 조사선은 하기 쉽습니다. '이 뭣고'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참선하는데 속제를 던진 것이 '뭣고?'입니다. 누군가 '부처가 뭐냐'고 묻자 '마른 톱 막대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왜 마른 톱 막대기라고 하는가?'라고 의심이 생기지요. 이런 속제를 푸는 것이 참선입니다.

부지런히 출고 뒤아서 먼지와 티끌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래면목 그대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먼지가 끼면 그 작용을 받게 되는 것이 중생이요, 먼지가 끼지 않으면 부처다 이 말입니다. 청정보리심에는 언어도 문자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보리의 병풍이요, 마음은 명경의 겹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정보리심에는 언어와 문자가 붙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그 언어 자체도 잘 못된 것이지요. 신수대사의 계승은 이 점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병풍이라고 해석한 것은, 몸이 보리를 장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시비가 붙을 것이 없어요. 그

야는 것입니다. 이후의 법문은 다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래면목을 알기 위해 수도도 하는 것이고, 의발을 빼앗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뜻만 안다면 오늘 법문은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래면목 자리를 찾아봅시다.

정리·여수영 기자 · 사진·백재환 기자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서버버스 매주 토요일 11시
조계사암 출발 (왕복 1만원)

질의

삼매에 들면 삼학은 절로 지켜지는 것



정원 스님(봉선사 능엄학원 학장)

질문1 어떤 경전이든 경전의 내용을 내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름을 삼는다고 합니다. <육조단경>이라고 할 때 '단(壇)'은 불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경'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의룡 스님 해능 스님은 동산에 야의 법단(法壇)을 차리고 설법을 했지요? 그 설법한 자리를 일컬어 '단'자를 붙여 <단경>이라 했을 것입니다.

질문2 <화엄경>은 그 속에 원융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화엄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계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만

보더라도 비구 스님의 경우 250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 계는 다 외우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육조단경>을 보면서 일견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돈오(頓悟)'의 논

리도 보면 계가 곧 정이요, 정이 곧 해라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정해 삼학을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룡 스님 삼매(三昧)에 들면 계정해 삼학은 절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질문3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입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법문한 내용에 보면 '만일 일체종지를 이루고자 하면 모름지기 일삼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해야 한다(若欲成就種知 須達一相三昧 一行三昧)'고 하셨습니다. 일삼삼매와 일행삼매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의룡 스님 일삼삼매도 그저 삼매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경전 많이 보아도 망상 가득하면 지혜 멀어져

질문1 <육조단경> '떡이븐' 등에서는 육조 스님의 탄생에서 광명이 비추고, 선인이 와서 예언을 하거나, 발우를 강제로 가져가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돈황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불자들이 <육조단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판본을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서재형(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의룡 스님 제 생각으로는 스님의 생애와 신이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판본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담긴 '떡이븐' 등을 읽고 공부한다면 신심(信心)이 더 나지 않을까요.

질문2 스님께서는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도 전제하신 후 신수 대사의 계승 중 '나무(樹)'를 '병풍'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리를 나무에 비유한 것은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에서 쓰인 것이고, 신수 스님은 보리를 나무처럼 기르는 점수(漸修)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능 스님은 보리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것이라는 뜻으로 계승을 지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담긴 '떡이븐' 등을 읽고 공부한다면 신심(信心)이 더 나지 않을까요?

의룡 스님 제가 나무를 병풍으로 새긴 것은 신수스님의 편에서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처음 배울 때는 큰스님들이 해석하는 대로 '나무'라고 그 뜻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육조단경>을 보다 보니 해석이 달리 됐습니

다. 몸은 보리를 장엄하는 병풍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병풍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질문3 스님께서는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의 시비를 보고 무척 슬퍼하셨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꾸고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 즉 파사원정(破邪顯正)을 이루려는 일심(一心)이 견고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의룡 스님 <금강경>에 나오는 '아득 다라삼삼보리'의 뜻만 제대로 생각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이루려는 일심(一心)이 견고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질문4 이번 법회의 주제가 '경전,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의룡 스님 망상(妄想)을 버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망상이 가득하면 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줄의 경전을 보아도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여수영 기자

영가전도전문도량 약천사
제4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10월 21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 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2006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음, 8월 30일)
- 장 소: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양력 10월 21일 (음, 8월 30일)
- 3재: 양력 11월 4일(음, 9월 14일)
- 기도회형(막재): 양력 12월 2일 (음, 10월 12일)
- 기도 동참비: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당)
- ※ 위패비, 아가옷: 무료
- 준 비 물: 사랑, 과자, 분유(우유) 등
- ※ 7계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배내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읽습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지은 양장 02)3391-8523 / 011-9002-8523

六祖寺 현웅스님 목요강좌 夢山 法語



선원장 玄雄스님

▶ 일시: 06년 10월 19일 (음력 8월 28일) 시작,
07년 1월 19일 회향.

* 정월제 이므로 조기에 入房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이 있음.

참가 대상은 信心있는 사부대중, 出家者들은 다 入房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 동참비: 3개월간 15만원
- 온라인 번호: 국민은행 016-701-04-017-439
- 육조사, Phone: 02)953-5291

* 夢山 法語는 ? *

중국 원나라 때 선승이신 몽산 스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간화선 화두 공부법 지침서이다. 이 法語集에는 화두의심을 어떻게 짓어 가야 하는가? 방향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세 한국불교를 다시 부흥시킨 경허선사께서 선문에는, 귀한 어록이라고 권했던 법어집이다. 그뒤로 이 몽산 법어는 해암 스님과 전강스님께서도 후학을 위해 소중히 다루어 주셨다.

흔히들 선방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소홀히 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禪 공부의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고쳐잡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 결과 방황과 헛된 이상만 자라나고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癡만 남는 것이 현금의 일이다. (이런 일 때문에 제 3의 수행자들이 간화선을 비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몽산 법어는 화두공부 하는 이들이 잘 못 접근 하기쉬운 바쁜 마음을 섬도있게 다루고 있다. 선명을 고치는 데는 이만한큰 선문집이 드물다.

* 선원장 玄雄스님은 *

20년간 서양인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고 2년 전에 귀국, 서울 돈암동 육조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2004년초 조계사 선원장 간화선법회를 시작으로 국내 백고과 법회, 성천 아카데미에서 육조단경, 불교 대학원에서 간화선 강의, 불교방송국에서 선수행 상담을 했다. 3년째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의사들에게 심심명을 강의 진행하고 있다.

*** 저서로는 선문집 "물지 않는 질문"이 있다.***